



또 한번의 기회

임영수 담임목사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새 천년에 들어 두번째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한 해를 살고난 후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만족함보다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고상한 이상은 있지만 언제나 그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곤 하십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혼자서 살아가도록, 우리 멋대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해 가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은 물론 세상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갈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기는 “하나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손에 들려진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주체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도 못준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 온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 갈수록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그분 앞에서 신실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은 지난해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좀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에게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금년에 교역자 세 분을 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사임하신 김성식 목사님에 이어 그동안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시던 안사무엘 목사님과 정한조 목사님이 임기가 되어 교회를 떠나시게 됨에 따라 그분들을 대신해서 세 분의 교역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동안 성실하게 섬기시다 떠나시는 두 분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들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새롭게 실시되는 몇 가지 목회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다음의 페이지에 자세히 열거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자세히 보시고 마음으로부터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금년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해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 희망, 사랑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즐거움 함께 무엇 우를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슬라 (롬 12:15)

제28호 (격월간)

발행일 2001년 1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138-22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 · 고 교내)

주님의교회

T. 416-5181 ~ 2 F. 416-5180

인터넷 ID : <http://www.Lord-church.or.kr>

CONTENTS

- 1
또 한 번의 기회 / 임영수 목사
- 2
금년의 목회사역 / 임영수 목사
- 3
온전하게 믿고 살고 /
천경우 집사
- 4~5
특집 / 새해를 맞이하며
- 6
태양은 침묵하는 자를 위하여 /
정용섭 집사
- 7
때가 되면 / 김경덕 집사
- 8
한계령 떡볶이 / 안사무엘 목사
보내는 마음 / 조원호 안수집사
- 9
삶의 이력서 / 정한조 목사
교회소식
- 10
시 / 정해춘 집사
신앙클리닉
교회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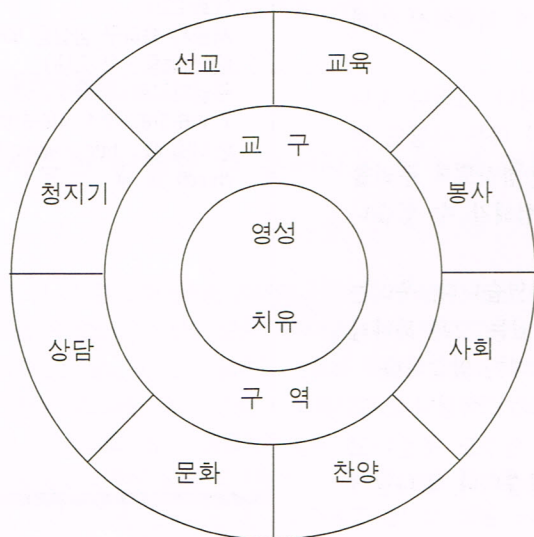
금년의 목회 사역

임영수 담임목사

목회 주제 :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해 가는 교회 공동체

신앙 목표 : 거룩한 교회 공동체
보편적 교회 공동체
친교의 교회 공동체
섬김의 교회 공동체

금년에는 특별히 사역 중심의 목회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역 중심의 목회 모델을 도표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역 중심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의 중심부인 “영성과 치유”입니다. 영성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 중간 위치에 있는 구역(구역에 속한 교인)을 건강한 구역으로 양성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곽의 큰 원인 여러 분야의 사역에 참여해 가게 됩니다.

금년에도 “영성과 치유” 목회를 위해 지난 해와 같이 전교인이 매일 말씀을 읽는 일에 참여케 될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일용할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금년에는 “말씀의 창”(일일 묵상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사의 흐름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하루의 양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2주간씩 특별 새벽기도회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교인이 좀더 심도 있는 영적 훈련에 참여해갈 수 있도록 주간 저녁시간 화·수·목요일에 각각 다른 의미의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니다.

화요일 - 치유와 성장,
수요일 - 성서학습,
목요일 - 영성과 기도

모든 교인들은 주간에 이 세 시간 중 어느 한 시간은 반드시 선택해서 일 년 동안 참석하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것 외에 이 세 날 가운데 한 날은 반드시 출석하셔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4부 예배(오후 1:30)를 새로 신설해서 1부 찬양, 2부 예배로 강화하여 주일 저녁 예배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간 낮시간 화요일 오전 시간에 분기별로 환경, 선교, 디아코니아, 호스피스 교육 등을 실시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교, 봉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교

- (1) 아시아 지역 국가 내 1개 지역을 선정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의료·생활 환경 등 '사회봉사 선교' 실시
- (2) 기존 선교 지역 계속 지원 및 새로운 선교지 선정 지원
- (3) 도서 지방 또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봉사 선교
- (4) 유진벨 재단과 협력하여 북한 1개 지역 지원
- (5) 외국인 근로자, 특수기관, 의료 봉사 지원
- (6) 방송 선교

○ 사회

- (1) 전교인 환경 친화 생활 운동 전개
- (2) 특수 사회봉사 기관과 연대 및 지원·봉사 교육
- (3) 나눔의 주일 적극 장려
- (4)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 (5) 예방 생활협동조합(유기농산물과 환경식품운동)에 참여

밖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내용이 있는 목회로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하려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의 있는 참여를 기대합니다.



온전하게 맏기고 살자

천경우 집사(45구역)

얼마 전 한 음식점에서의 일이다. 식사를 마친 노인 몇 분이 세월의 빠름을 독백처럼 서로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무심코 엿들은 옆자리 어느 학생들의 대화는 대입수능시험을 준비할 때는 몰랐었는데 요즘은 시간 보내기가 너무 지겹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개개인의 일과 삶의 양태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제각각 다른 속도감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속도감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아마도 각박한 일상에서 너무 허겁지겁 살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한 다.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몇 초를 참지 못하고 닫힘 버튼을 눌러대는 조급함. 빨간 신호등인데도 떠나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비준법정신. 뭐가 그리 급한지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여유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

어느 틈엔가 또 다른 한 해가 훌쩍 우리 곁에 다가왔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그 어느 해보다 더 쫓기듯 살아온 한 해였다. 경제 급락으로 인한 IMF 공포가 되살아났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야기한 의약분쟁, 산업 각 분야의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과 사회적 이반 현상으로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살았다. 나라의 장래와 시급한 민생은 뒷전에 둔 채, 네 탓 내 탓만 반복하며 당리당락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권. 나랏돈, 국민의 돈으로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악취 나는 경제계의 모습도 우리 마음을 여유롭게 하지 못하고 마냥 쫓기게만 했다. 이러한 주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나약함이 우리를 조급증으로 내몰았던 것 같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의 모습을 떠올린다. 사울의 창을 두 번이나 피하고 도망가는 다윗(삼상 18:11),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 도망가는 다윗(삼상 19:12), 그리고 요나단의 도움으로 뚝으로 도망가는 다윗(삼상 21:1)의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한사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다윗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쫓기기만 했지 우주만물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자성해본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올 신년호 특집으로 택한 주제는 '희망의 씨앗을 심자'였다. 지난 해도 몇 십 년 만의 수해와 태풍을 이기고 대풍을 이뤘지만, 쌀값, 과

일값, 채소값 폭락 등으로 낙심해 있는 농민들에게 삶의 의지와 꿈을 심어주자는 의도에서였다. 또한 농업에 대한 비전을 갖기도 어렵고 늘어만 가는 농가 부채로 의기소침해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이 희망을 위한 메시지가 비단 이들 농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울리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쫓기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유하며 살아가자는 뜻에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요 15:5~6)."

맡기고 의지할 때만이 새 희망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를 영원한 반석이 심이로다(사 26:4)."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잠 3:5~7)."

이 생명의 말씀들이 삶 속에 녹아나도록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희망의 씨앗을 힘차게 뿌리는 한 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겠다.

봉사하실 분!!!

- 영상미디어부 / 교회 LCD 프로그램 제작 및 관리자 (문의 : 류영수 집사 017-261-4961)
- 1부 성가대 (문의 : 1부 성가대 대장 최경호 집사)
- 3부 성가대 (문의 : 3부 성가대 총무 주재형 집사)



새해의 나의 기도

김대현 안수집사피택자
(41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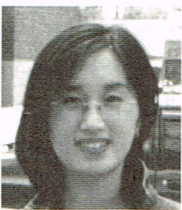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살 수 있도록 계획 하셨지만,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 하였다. 그들이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였는지를 고린도전서 10:6~9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들은 악을 즐겼고, 우상숭배를 하였고, 간음하였으며, 주를 시험했고, 원망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15여 년이 지났건만 나의 신앙 수준은 아직도 유아기에 머물고 있기에 항상 불만이었던 바,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은 교회와 세상과의 이율배반적인 삶 속에서 가나안 땅을 성취하지 못하고 의혹과 방황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에게, 특별한 깨달음으로 다가왔고 자연스럽게 이를 나의 삶에 적용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새해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며 삶의 변화를 소망해 본다.

-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서는 사랑은 타인에게 주는 것이며 악은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저에게 항상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어, 저의 육신의 만족과 이기적



낭비하는 사랑

장현아(청년2부)

가끔 집과 학교를 오가는 길 중간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기도하곤 한다. 우연찮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본당 2층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커다랗게 쓰인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답답한 마음이었을 때 혹은 슬픈 마음이 가득했을 때, 또 무력감 속에서 아무런 힘도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평범한 말 속에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찾곤 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 중 해결한 것보다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가 더 많은 지금, 그리고 내년쯤엔 이제 청년부를 떠날 때도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 청년부 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텐데,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한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기도해 본다는 명목하에 눈을 감으니 나와 청년부를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이 떠오르며 꼬리를 물었다. 기도는 안하고 걱정만 잔뜩 하다가 ‘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속 시원히 좀 알려주세요’라고 물었다. 불현듯 ‘현아야, 네가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니?’ 하는 말씀이 마음에 울렸다. ‘그래, 내가 아무리 미래를 상상하며 추측해 보아도 결국 난 지금 여기에 있을 뿐이고 염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또 깜빡했군. 하나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한 번 물었다. ‘현아야, 나는 네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단다. 너는 먼저 나의 나



새 시대의

교회 교육

박경삼 전도사(유년부)

또 다시 찾아온 정치, 경제의 위기와 사회 불안으로 우리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차도를 점령하여서 1년간 땀방울로 가꿔 거두어들이던 야채와 과일들을 바닥에 팽개치며 시위하는 농민들을 화면에서 접하고, 종교와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으로 길바닥에서 혹독한 추위와 밤마다 싸워야만 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장애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외롭고 쓸쓸히 살아가는 장애인(障碍友)과 노인들을 생각하게 되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밥 세끼 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나친 호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곤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웃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우리의 나라를 병든 나라로, 거짓과 불신의 나라로, 탐욕과 이기주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속상하다 못하여 속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기도 합니다.

뼈아픈 조국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교회 교육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대체 어떠한 나라입니까’, ‘제가 하고 있는 교회 교육이 그저 주님의교회와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던 이 세상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미래인 이 어린이들에게 대체 무엇을 가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형제들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혹시나 봉사 자체에 열중한 나머지 봉사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을 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조차 얻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고도 넘치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 짝지어 주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영원한 반려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건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주신 당신의 뜻과 성품에 맞도록 운영하게 하시고, 행여 거짓말과 속임수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하나님의 은총과 사업의 번창을 간구하면서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불평·불만·비난·원망 등의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여 타인과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저를 형성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여, 새해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라와 의를 구하렴, 그러면 된단다.’ 마음에 결심이 섰다.

내년의 청년부 사역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것일지를 생각해본다. 아직 채워야 할 것이 많은, 혹은 버려야 할 것도 많은 청년부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면 탁월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사랑 때문에 힘의 사용을 계속적으로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리더십인 것 같다. 사랑하는 것보다는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힘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사랑은 소모적이고 중요한 일을 이루어내기엔 너무 느리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고집스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게 참 많은 사랑의 빛을 졌다. 심지어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보혈을 흘렸다. 그 피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자 남을 가치가 있는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이 아니라 오래 걸리는 사랑을 택하셨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의 존재를 견디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오늘을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진 사랑의 빛을 이젠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내년에 여전히 인색하고 쉬운 길만 가고 싶어하는 나도 낭비하는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금방 지쳐서 후회하고 포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참, 금세 또 걱정하고 있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다시 말씀을 떠올린다. 때로는 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분의 그늘 아래 쉬게 하시며 숨겨진 삶도 살게 하시는 세밀하고 부드러운 인도함을 생각하며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려 한다.

쳐야 합니까’ 하는 것들로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 교육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루어지던 때는 화려한 교육 자료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던 때가 아닙니다. 비록 소박하지만 그 시대와 사회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침투하여 역사를 바꾸어가던 때였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로버트 레익스(Robert Raiks)의 주일학교 운동으로 가난과 무지 속에 고통 당하던 빈민 아동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던 시기가 그리하였고, 19세기말 우리 나라의 개화기와 일제 치하에서의 교회 교육이 그러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의 근본적 사명은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또한 ‘부정과 불신, 거짓과 탐욕 속에 병들어 있는 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남이 울 때 함께 울고 남이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신앙인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권적 선민의식을 갖도록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불품 없이 되셨던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 주는 기독인으로 자라도록 성령님께 간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생각하며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은 침묵하는 자를 위하여

정웅섭 집사(62구역)

그렇게도 떠들썩하게 맞이했던 새 천년의 원년도 지나가고 또 새해를 맞는다. 새 천년 새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같은 태양이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반복해서 비추도록 창조된 대로 운행되어지는 것뿐이다. 창조되었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뜻,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태양은 비추고 있는 것인가?

한 포기의 들풀을 살리기 위해서일까?

길썩 아스팔트 틈새에서 봄부터 생명을 부지해 오던 들풀이 가을날 드디어 씨를 맺는다. 봄에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싹을 틔웠을까?”하고 생각했던 바로 그 들풀이었다. 자동차의 매연과 사람들에게 짓밟힐 위험을 안고 자동차 바퀴에서 튀는 흙탕물로 갈증을 달래며 겨우 삶을 연명해온 그 들풀. 무엇을 위하여 그곳에서 모질게 살아 남아 단 몇 개의 씨를 맺었는가?

더구나 그 씨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데...

지구상에 오지에서 어렵게 살아 남는 인간들의 생명을 위해서일까?

동북 아프리카에는 몇 년째 비가 내리지 않아 어린이들이 수없이 굶어 죽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살아 남아 그 세대를 이어가려고 어렵게 살아 남는다.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은 평생, 또 대를 이어 전쟁과 공존하며 살아 간다. 왜 하필이면 그런 곳에서 또 무엇을 위하여 살까?

인도의 빈민가, 네팔의 고원지대, 아니 멀리 갈 것도 없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는 모든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아스팔트 틈새에서 생명을 부지해온 들풀과 많이 다른 것 같지 않다. 왜 이런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을까?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렵게 씨를 맺고, 또 다음 세대를 기약하며 살아 가는 것 그것이 창조자에 충성한 삶이 아니던가? 이 삶들을 위하여 태양은 어김없이 비추고 있다.

켈커타의 빈민가에서 죽어가는 생명들, 그들이 존재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인류사는 달라질 것 같지 않은 데도 테레사 수녀는 그곳에서 그 생명들을 위하여 그녀 자신의 생애를 바쳤다. 그렇게 한들 인도의 빈민들에게는 별로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겨우 모질게 몇 개의 씨앗을 맺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창조자의 창조자이심을 증명하는 삶이었다.

그를 위하여 태양은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비치고 또 비친다.

나를 위하여도 태양은 비추도록 창조 되었을까? 나는 누구인가? 보이는 내가 “내”가 아니고(I am not what I am)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내”가 아니고(I am not what

I think I am) 남들의 눈에 비친 나를 생각하는 내가 “나”다(I am what I think they think I am)?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중시하는 내가 아니던가.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고 잘난 것을 보여 주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지 않은가.

창조자의 창조자이심을 증명하고 간 테레사 수녀는 말했다.

“침묵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봉사를 낳고,

봉사는 침묵을 낳는다.”

침묵은 하나님과 나만의 언어.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모든 침묵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침묵, 즉 말씀을 많이 읽는 자의 침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일 것이다. 그런 침묵 속에 깊은 믿음이 있고, 그런 깊은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고, 진정한 사랑으로만이 참 봉사를 할 수 있으며, 참 봉사를 한 사람만이 진정 침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다.

나를 이 말씀에 비취본다. 나는 침묵하며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그렇다면 비로소 내게 사랑이 있는 것이다. 나는 어떤 일로든 상처 받지 않는 내 영혼을 간직하며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비로소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가 날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가?

그렇다면 비로소 나는 침묵하며 하나님 나라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나는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이 땅에서 나의 모습으로 단 몇 개의 씨앗을 맺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나의 이 삶을 위하여 또 일 년의 삶이 연장되고 그 생명을 위하여 태양은 오늘도 침묵하며 또 떠오른 것이다. 아! 파사로운 햇살 같이 임하시는 성령이여!

함께 그 거위 하 함께 울 라
에서는 원 그 를 모 집 하 고 있 습 니 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김경덕 집사(70구역)

오늘은 삼십 여 년 동안 가까이에서 교분을 주고받던 이웃 어른 한 분이 저 세상으로 떠나는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늦은 장마비가 오락가락 하는 장지에서 내려다 보이는 호수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떠나는 영혼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 같아 더욱 구슬뿔었다. 이분은 대학교 4학년때 하숙집에서 처음 만났다. 주인 아저씨였지만 하숙집을 옮긴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얼굴을 뵈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안방으로 초대되었고, 한창 배고프던 시절 난생 처음으로 아메리칸 스테이크를 맛볼 수가 있었다.

그후 직장 생활의 시작과 결혼 등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교분은 지속되었고 특히 중동지역 지사 근무 때 우연히 현지에서 재회하여 본격적으로 남다른 교분을 쌓아왔었다. 작은 키에 당당한 체격과 약간의 팔자 걸음과 날카로운 눈매, 어디 하나 빈틈을 보이지 않는 분이셨으며 워낙 역마살의 끼를 타고나신 분이라 고집도 세고 남의 말을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으시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 분이다.

65여 년 일생을 살아오신 면면을 보면 일본 출생과 12년 동안 일본 생활, 미군들과 10여 년 청년기, 월남생활 8년에 사우디에서의 25년간의 사업 등 과연 몇 년을 고국에서 사셨는지 가늠이 잘 가질 않는 특별한 분이시다.

이분을 떠나보내고 허망해 하는 이유는 서로의 만남 가운데서 믿음의 동반자로 인도할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기회를 놓친 아쉬움 때문이다. 워낙 혼자서 해의 생활을 오래 하였고 또 매사를 스스로 결정하신 분이라 의지가 강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외로운 분이셨다. 그래서 사우디 근무시절 주일(금요일)에 교회에 모시고 나가면 어떻게 하고 작정을 하고 지나치는 말로 슬쩍 교회에 함께 나가 예수를 믿을 것을 권해 보았다. 그러나 일언지하에 거절하셨다. 사실 본인 스스로가 믿음에 확신이 없던 시절이라 두 번도 권해 보지 못하고 그만 물러서고 말았다. 그후 서울에 오실 때마다 가끔 나에게 물으시곤 하셨다. “요즈음도 교회 나가?” 그때마다 건성으로 “예!”

그 당시 당신에게 비취진 나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예수쟁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던 것 같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믿음의 씨앗을 받을 터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씨 뿌리는 자가 게을러서 낮잠을 자고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4년 전 잠시 귀국하여 교외로 새로 이사한 저희 집을 직접 방문하시고는 이제 해외 사업을 정리하고 들어와

조용히 살고 싶다면 바로 이웃에다 예쁜 집을 새로 지으셨다. 그리고 매년 여름이면 귀국하시어 아주머니와 한 달 정도 기거하시다가 다시 들어가기를 삼 년 여, 그때마다 주님의교회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완전히 귀국 후에 권하기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까운 기회를 그냥 흘려만 보내버렸다. 신앙에 대한 확신과 전도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나의 어리석은 소치 때문에...

지난 7월초 불편하여 급히 귀국하셔서 서울 모병원에 입원중인데 나를 찾는다는 전갈이 왔다. 집사람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병 문안을 가서 보니 위암 수술 후 회복중이셨는데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말씀하기도 힘들어 하셨다.

“아저씨 속히 회복 하셔야죠.”

“그래야지.”

“함께 이웃에서 재미있게 삽시다.”

“.....”

나는 이 순간마저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아저씨,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합시다”라고 왜 간곡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는지 이제 와서야 후회해 보지만 세 번이나 주어진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았다. 며칠 후, 반혼수 상태에서 본인을 부른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찾아갔지만 이미 불려도 대답 없는 안타까운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는 오늘 이분과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작별을 고한 후 부끄럽고 허망한 심정으로 산을 내려왔다.

행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나태함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무지하고 게으름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신 기회를 그때마다 놓쳐 버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떠난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서 뵈게 되면 진심으로 용서를 빌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그때 하리라고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가 언제이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 아멘 -



한계령 떡볶이

안사무엘 목사

지난해 1월, 세미나 강의를 하기 위해 한계령을 넘어 설악산으로 향하였다. 한계령 정상에 이르렀을 때 요기를 때울 요량으로 휴게소에 들렀다. 매점 입구에 이르렀을 때, 매점 문 밖에는 맛있게 보이는 떡볶이가 손님을 기다리며 한가히 놓고(?) 있었다. '떡볶이를 먹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 별로 맛이 없는가 보군' 이렇게 생각하며 음료수 하나를 사들고 차를 향했다. 사실 단골 손님이 없는 휴게점의 음식이(특히 떡볶이가) 내게는 늘 그러한 인상을 주었듯이, 고추장을 대충대충 섞어 팔기가 일쑤여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차 안에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음료수로 출출해진 배를 도저히 채울 수 없었다. 다시 매점으로 발길을 옮겨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떡볶이로 향하는 내 시선을 거둘 수 없었다.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먹어 보자' 포장된 떡볶이를 운전석 옆에 놓고 천천히 내리막길을 향했다. 이쑤시개로 떡볶이 하나를 찢어 입에 넣었다. 그런데 웬 일인가! 생각했던 것보다 떡볶이가 '억수로' 맛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를 먹지도 않고...'

떡볶이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되었다는 듯 고

개를 한 번 설레이었다.

플라스틱 안에 담겨진 십여 개의 떡볶이를 하나씩 하나씩 맛을 음미하며 내려왔다.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며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는 기분을 아시는가? 떡볶이를 다 먹은 후에 언젠가 설악산을 갈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한계령을 둘러 떡볶이를 또 사먹으리라 생각하였다. 저 맛이 변치 않고 계속 남아있어야 할 텐데 하는 염려(?)와 더불어 내 마음 깊은 곳에 맴도는 또 하나의 진한 맛이 있었으니, 내 인생은 저런 떡볶이 맛을 낼 수는 없을까! 잠깐동안이라도 나를 만난 사람이 '아! 그 사람 다시 한 번 만나 보고 싶다' '서울에 올라가면 그 사람 꼭 한 번 만나봐'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한계령 떡볶이! 강원도를 가면 다른 길이 아닌 한계령을 지나게 하는 그 맛이 언젠가 나에게도 배어있기를 소망하며 목회의 고향인 주님의교회를 떠난다.



보내는 마음

조원호 안수집사(62구역)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만났습니다.

1년간 서로를 의지하며 우리의 고민을 서로 토론도 하였습니다.

1년이란 긴 세월 동안 주님을 알고 싶은 일념으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헤어짐이라는 글자 앞에 우리는 당면하였습니다.

아쉬움을 남긴 채 우리는 헤어져야 합니다.

친구들이여!

먼훗날을 위하여 우리는 헤어져야 합니다.

서로의 앞날을 위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여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장되어 있는지 진단도 하여 봅니다.

하오나, 우리의 성장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남들은 우리들을 보고 많이 성장하였다 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그 길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곧 우리의 성공의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알 때가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등부 3학년 1반 담임 조 원 호 안수집사



삶의 이력서

정한조 목사

사람들은 취업이나 진학을 할 때에 이력서를 냅니다. 그 이력서에 기록된 것은 불과 몇 줄 되지 않지만 그 몇 줄 속에는 그 사람 전 인생의 과정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동일한 학력과 동일한 직업이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이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그 과정들을 수행했을 수도 있고, 형편없이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에 처음에 올 때에 들었던 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교역자의 이력서는 종이 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달 말(12월 31일)이면 지난 팔 년 육 개월(교육전도사 2년 6개월, 전임 6년)의 저의 주님의교회 사역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저의 이력서에는 이제 주님의교회에서 섬겼다는 내용이 한 줄이 더 생겼습니다. 이 한 줄의 평가는 하나님과 주님의교회의 성도님들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에게 “과거에 일하던 정한조 목사란 사람이 어땠습니까?”라고 물을 때에, 성도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저는 이력서를 잘 쓴 것이고, 만약 고개를 가로 저으면 비록 주님의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력서를 잘못 쓴 것일 것입니다.

저의 동기 목사들은 지금까지 대부분은 몇 번 교회를 바꾸어 섬겼지만, 저는 신학을 한 후에, 주님의교회 한 곳에서만 있었습니다. 제 동기들이 한 교회에만 있어서 어떻게 교회의 다른 모습들을 알겠느냐고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를 자주 옮긴 분들이 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교역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두 목사님과 함께 사역—이것은 결국 두 교회를 섬긴 것이나 마찬가지—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았고, 교회가 이전하며 성장과 성숙하는 것도 보았으며, 교회(강당)를 건축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고등부 4년 반, 유년부 1년, 소년부 1년, 청년부 2년 반, 교구 2년 등 교육부와 장년부까지를 다 해 봤으니(재주가 없어서 그런가?)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도 거룩한 경험으로 남아 앞으로의 목회에 자양분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제 친구 목사가 우스개 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는 정말 좋겠다. 은혜도 받고 돈도 벌고.” “목사들이 임목사님과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께서 너를 찾아오냐?” 지금까지의 저의 가장 큰 복종의 하나는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주님! 나중에 주님의교회와 같은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저의 지난 팔

년의 이력이 단 한 줄이지만 그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7년에 안수를 받는 예배에서 어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요지가 이러하였습니다. “새로 안수를 받는 목사님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교인들을 편애하지 않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마 이 장로님의 눈에 비친 교역자는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편애하고, 게으른 모습을 가진 분들이었나 봅니다. 적어도 이 장로님께 비치는 이런 목회자는 아무리 학력이 높고, 뛰어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력서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 기도가 지금까지 제게 각인이 되어있는 것은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직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지키려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누구보다도 삶의 이력서는 잘 쓰고 싶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의 모습과 나태함으로 인해 속이 상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일마다 때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소식

2001년 목회 프로그램

- 2월부터 주간 신앙 프로그램이 새로워집니다.
 - 화요강좌(치유와 성장 / 임영수 목사) 저녁 7:30
 - 수요성서강해(신약) 저녁 8:00
 - 목요기도회(영성과 기도 / 2월 : 유해룡 목사) 저녁 8:00
- 1월부터 저녁찬양예배가 청년예배(오후 1:30)와 함께 4부 청년찬양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 2001년 목상노트 '말씀의 창'을 통해서 새벽기도 시간이 진행됩니다.
- 북한동포를 위한 한 끼 금식이 금년에도 매월 1일 계속됩니다.
- 금년에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Q. 쉬지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로 큰 문제나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에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거나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또 다시 기도를 쉬는 일을 되풀이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 삶이 기도와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꼭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제 가운데는 언제나 대화가 게재됩니다. 교제 가운데서 대화는 곧 기도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해갈 때 어떤 때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깊이 있게 대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을 하거나 길을 걸으면서도 내적으로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에 "쉬지 않고 기도의 생활"이 있게 됩니다.

교회예절

교사들의 어깨가 축 늘어지는 이유에 대해

몇 년 전 한 어머니께서 자녀의 신앙성장을 위해 개인 성경교사가 되어줄 수 없느냐고 물어 오신 적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위해서도 과외수업을 받는데, 신앙 교육을 위해서 특별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일만 기억하면 진리의 교사는 자긍심으로 가슴이 뭉클해져 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 학교를 성인 예배를 위해 자녀를 맡기는 곳으로 여기는 듯한 안타까운 현실을 대하곤 합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 살짝 아이를 불러내어 데리고 가시는 부모님, 빨리 끝내 달라고 단혀진 문을 계속 여닫는 부모님, 1년이 다 되도록 담당 교역자와 담당 선생님의 이름을 모르는 부모님, 수련회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두고 연락도 없이 자녀를 보내지 않는 부모님, 친구 사귄 기회를 열어주지 않은 채, 친구가 없어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를 무작정 성인예배에 참석시키는 부모님, 시험기간이 되면 자는 자녀를 절대로 깨우지 못하는 마음 약한 부모님, 고3이 되면 학원 수업 시간에 맞추어 주일 예배의 참석여부를 조정하도록 방치하는 부모님.

부모님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 교양 수준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듯, 자녀들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 교육은 교양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임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나 신앙을 먼저 생각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조금의 열심을 내어주시고,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조금의 예의를 갖추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퍼즐 지난호 정답

- 가로 : 1. 십자가 3. 나사렛 5. 뽕나무 7. 나인성 8. 마리아 10. 엠마오
- 세로 : 1. 십팔 2. 가시나무 4. 야벳 6. 나실인 7. 나귀 9. 아리마대
- 정답 보내주신 분 : 이희순 집사(40구역) 이영희 집사(74구역)



당신의 사랑은

정해춘 집사(71구역)

사위어 가는 모닥불
닭이 세 번 울어도

모른다.
모른다.
정말 모른다고
우리는.

검은 밤이
부엉이처럼 울어도
당신은 색동옷 입을
유월절 어린 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 말씀이 응하게 하려
가시 면류관 쓰고
마지막 피와 물까지
다 쏟은 속죄양.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당신의 심장은
이제 우리 가슴에서 뛰고.

또, 당신은
당아새 우는 광야로
나비등에 꽃씨를 싣고 떠나
개벽의 좋은 이야기로 피어난다.

당신의 색동 저고리 사랑은
오늘날 다윗 동네의
기쁘고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어라!

알립니다!!!

수련회는 자녀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집중교육시간(intensive course)입니다.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기도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날짜순)

- 영아부 - 2월 18일(주)
- 유아부 - 2월 18일(주)
- 유치부 - 2월 18일(주)~19일(월)
- 중등부 - 2월 22일(목)~24일(토)
- 초등부 - 2월 23일(금)~24일(토)
- 고등부 - 2월 23일(금)~25일(주)
- 유년부 - 2월 26일(월)~27일(화)
- 소년부 - 2월 26일(월)~27일(화)